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7월 수요집회 시간에는 '폭풍 속의 요나'라는 제목으로 김재홍 목사가 <요나서>를 강의합니다.

단양에서 친환경으로 가꾼 마늘을 판매합니다. 특상품 4만원, 상품 3만원, 중품 2만원.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씨와 홍주희 씨가 결혼합니다. 결혼예식은 14일(토) 오전 11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력량 10% 줄이기 - 7, 8월 교회 전력 사용량을 작년보다 10% 줄이려 합니다. 실내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안 쓰는 공간의 전등은 꼭 꺼 주세요.

**2012 청파전교인여름수양회**  
일시 : 8월 2일(목) - 4일(토)  
장소 : 흥천 팔렐 중고등학교

식 당 봉 사 : 이형숙 광혜자 권미숙 김수진 이미혜 최숙화 최재욱  
7/15 식 당 봉 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경선 구성실 김기성  
오늘설거지봉사 : 양상철 박재란 김광수 조소명  
다음 주 설거지 : 이국노 김민화 조선환 강인숙  
새 교 우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메마른 더위를 힘들어하던 우리는 곧이어 찾아온 눅눅한 장마를 힘들어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공홀히 여겨 주십시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비리가 일상화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실이 밝혀져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한 이 사회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권력을 통해 쉽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순배, 김명순, 문영혜, 김지호, 박정숙, 이인웅, 김재영, 홍복선, 광상준, 이교영, 김일환, 전혜리, 박창운, 안경진, 오송희, 홍선희, 최경민, 김문은, 이현희, 허정숙, 이재두, 홍춘희, 미주옥, 김동윤, 이형숙, 이재문, 정두리, 구명자, 김미애, 김훈민, 안정림, 정복순, 김경수, 김성한, 김종락, 유경준, 안종일, 이증자, 정한우, 김근조, 박영문, 백정현, 김왕무, 종순신, 김문서, 오임순, 정옥영, 김문홍, 정오순, 영진영, 김남영, 김범성, 노정현, 남순철, 박순옥, 김경래, 오김고, 박미영, 안경아, 유재영, 순애영, 박지은, 정영선

### 감사헌금:

권미숙, 연승민, 정선희, 김재성, 이범춘, 조병익, 김정진, 김지호, 전혜리, 김미희, 한성건, 김지호, 이증자, 무명6, 박병구, 김창경, 김정애, 서원금, 안정현, 이지혜, 이춘재, 전웅

### 녹색꿈헌금:

문복순, 양상철, 박재란, 이재문, 이진영, 한양미, 이현순, 장원호, 박성희

### 생일감사헌금:

구명자, 김근종, 정옥영, 이범석, 류정옥

장노최장정박박이안정박김이손	혜순희영영숙경재순형홍영혜재범성	속옥영숙례재선정숙속선경흥범성	백박최장정박박이안정박김이손	혜성최영영진권혁정금권현정향자범성	속희미신숙희운순미정순미영식상	정배최신이문박오김이김조	두희영봉복호필수희항	리영신배순선순정우미	장혜정장정배김구정정	속림순미주희순순실주영현
----------------	------------------	-----------------	----------------	-------------------	-----------------	--------------	------------	------------	------------	--------------

# 사는 맛

정일근

당신은 복어를 먹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복어가 아니다, 독이 빠진  
 복어는 무장 해제된 생선일 뿐이다  
 일본에서는 독이 든 복어를 파는  
 요릿집이 있다고 한다, 조금씩  
 조금씩 독의 맛을 들이다 고수가 되면  
 치사량의 독을 맛으로 먹는다고 한다  
 그 고수가 먹는 것이 진짜 복어다  
 맛이란 전부를 먹는 일이다  
 사는 맛도 독 든 복어를 먹는 일이다  
 기다림, 슬픔, 절망, 고통, 고독의 맛  
 그 하나라도 독처럼 먹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의 사는 맛도  
 독이 빠진 복어를 먹고 있을 뿐이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마음의 빛을 살피며 사십시오. 마음의 빛이 밝으면 어두운 세상도 온전히 볼 수 있으나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밝은 세상도 어둡게 보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사십시오.

아멘. 제 안의 어두움은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어두움만을 탓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이 찾아오길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나부터 밝고 맑아져, 어두운 세상을 조금씩 밝히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히 빛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폭풍 속의 요나 / 김재흥 목사 기도 : 노순옥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조병무 장로	박아름 선생 김현주 집사

7월	영접위원	김인걸 허호범 윤성종 박성실 김윤정 김현주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단순하게 살기

### 7

탐욕과 이기심 같은 부자들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죄는 그보다 덜 드러나지만 그래도 영혼을 부패시키기는 마찬가지로 집니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는 간혹 부자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위장된 탐욕의 한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가난한 사람은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와 그 정신에 있어서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까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밥상에 놓을 양식과 몸에 걸칠 옷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든지 부자들을 속여 그들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보려는 가난한 자들도 있지요. 그들은 저임금으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려는 부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모든 일에 하느님을 믿어 의지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 8

집안이 몰락하여 궁핍해졌을 때 살아남으려면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겠지요. 이때, 빌려준 쪽에서 원금에 이자를 물린다면, 그 집안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갚아야 하니까요.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자는 자기가 무슨 친절을 베푼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실은 자선의 탈을 쓰고 지독한 악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남의 재난을 틈타 장사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곤궁에서 이익을 뽑아내고, 자선 행위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자선을 강도

질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한 가정을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배를 바위에 부딪치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물으는지 모르겠네요.

“어째서 내가 쓸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건가?”

내 대답은 이렇게입니다.

“물론 그대가 이 세상에서 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하늘에서 받을 것이다.”

### 9

조잡한 연장을 지닌 목수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연장이 좋지 못해서 간단한 책상 하나 만드는 데도 여러 날이 걸립니다. 게다가 물건이 잘 빠지지 않아서 값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털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계속 배가 고프더라도 돈을 모았다가 괜찮은 연장을 장만할 것이냐? 만일 그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좋은 책상을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입도 금방 나아지겠지요.

이 선택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영적 선택을 암시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소유한 재물을 모두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주기 위하여 재물의 일부를 돌려놓을 것인가?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만일 후자를 선택한다면, 몇 가지 지상의 쾌락을 희생하겠지만 그렇게 하여 하늘에서 얻게 될 기쁨은 땅에서 상실한 쾌락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땅에서 행하는 모든 자선 행위는 하늘에 맡기는 투자 행위입니다.